

배금주의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인간을 다른 동물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정신 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자기반성과 금욕에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면, 우리는 자기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고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물신(物神)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날 배금주의에 깊이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금욕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은 시대사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그들로부터 반발을 많이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욕심을 줄이고 물욕을 버리는 것이야말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윤리성을 구성하는 핵심이며 정신의 본질임을 우리는 깨닫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욕망을 추구하고, 자기들의 욕망충족에서 쾌감을 가지며, 특히 재물을 많이 쌓아두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누구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실상 한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편을 존경하고 다른 편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느님과 마몬(物神)을 함께 섬길 수는 없습니다.”(마태 6,24 루가 16,13 마르코 8,37) 그러므로 만일 누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작심했다면, 그는 우선 물신, 즉 돈 귀신을 섬기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배금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청빈(淸貧)한 삶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참으로 특기할만한 것은 미국의 실용주의 철학자로 알려진 윌리엄 제임스(W. James)가 아직도 자본주의의 병폐를 몰랐던 1907 년에 청빈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전쟁도 압도할 만한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것을, 다소 한쪽에 치우치는 것같이 보일는지 모르겠으나, 옛날 수도자들이 누려온 청빈사상에서 찾아야만 할 것 같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새삼스럽게 가난을 위한 찬송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우리는 정신적 생활을 도야(陶冶)할 목적으로 스스로 청빈의 도를 닦고 있는 사람을 멸시하는 경향이 있다. 모든 일마다 성급하게 달라붙거나 혹은 돈을 탐내서 허둥지둥 대거나 하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명예욕이 없다고 비난을 하지만, 나로서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새삼스럽게 진지하게 숙고하도록 권장하고 싶다.” 요컨대, 인간은 금욕에서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 진 교훈 양업 문화교육원 원장, 서울대 철학과 명예교수 >>

우리 부부가 참으로 우연한 기회에 금년 1 월 4 일부터 19 일간 인도를 순례하였다. 서울에 와 계시는 인도 선교사 신부님의 안내로 20 명이 함께한 순례였다. 갑자기 가게 된 여정이라 준비가 부족했다. 겨우 집 앞 서점에서 인도 소개 책자를 한 권 사서 대충 훑터 보았다. 그 나라는 우리나라의 30 배나 크고 남북이 길어서 겨울이라 하지만 북쪽은 춥고 남쪽은 더웠다. 우리가 입국한 곳은 뭍바이 시였는데, 영국인들이 봄베이시라고 부르던 곳이다. 새벽녘에 도착하였는데 기온은 15℃ 정도 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모닥불을 피워놓고 쪼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너무 낡아서 아마도 우리나라 어느 박물관에서도 구경할 수가 없을 것 같은 낡은 버스였다. 버스 안이 더워도 모기가 날아들어 창문을 열수가 없었다. 경비를 대략 추산하여 집행하고 사후에 정산하기로 하였기에 버스가 어떻다고 말할 처지는 아니었지만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들은 주로 수도회에 머물렀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한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불편한 시설이었다. 어쩌면 그것이 바로 그곳 사제들의 참 생활 모습이었다. 지극히 검소하고 참으로 소박한 모습들은 우리를 감동시켰다. 인도는 사도 성 토마스가 복음을 선포한 나라로 성인의 무덤이 있다. 그러므로 이 나라 가톨릭의 역사는 2 천년 이나 되었으며, 성인의 후손들이 8 백만 명이나 된다고 한다. 순례 중에 델리의 어느 수도원에서 사흘 밤을 지냈는데 그곳 책임신부님이 사도 성 토마스의 후손이었다. 그분의 모습이 너무나 순박해 보였다. 그 소박한 모습에 즉석 팬클럽이 생겼다. 자그마한 키에다 검은 얼굴이었는데 예순이 넘는 노 학자이시면서도 철부지 어린아이 같았다. 마침 그 수도회 미국 관구장 신부님이 오셔서 손님맞이 옷차림을 하셨을 법한데 참으로 수수한 복장에 감탄하였다. 언젠가 후진국을 여행할 때에는 현금을 넉넉히 가지고 가야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러나 신용카드가 있으니 하고는 안내 신부님이 추천하는 사적 경비 보다 조금 더 현금을 가지고 갔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었다. 가는 곳마다 그냥 돌이킬 수가 없었다. 그들의 한 끼 식사비는 보통 400 원 정도다. 어느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50 루피(약 천삼백원 정도)의 팁을 주었더니 그 사람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너무나 고마워하는 모습에 오히려 우리가 민망했었다. 우리는 물질이 너무나 풍부한 것 같다. 또 어느 날엔 하루 가이드를 한 무슬림에게 과일 천 삼백원 어치를 사 주었더니 고마운 나머지 눈물을 흘리느라 인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충격을 받았다. 일요일에 어느 본당의 청소년 미사엘 갔더니 학생들로 꽉 찼다. 그곳에선 청소년들이 미사를 켜 한다는 것은 생각 할 수도 없다는 그곳 본당신부님의 말씀에 넋을 잃었다. 비록 사람이 소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힌두교 나라이지만, 온 나라가 역동적이고 인정미가 넘쳐났다. 아직 그 나라는 가톨릭 성인이 한 분도 안 계시지만 엄숙하지만 기쁘고 즐거운 전례모습과 토착화된 신앙생활을 보면서 참으로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 구 신부님과 함께 한 나눔의 글 >>

예수님은 전형적 아침형 인간

<시몬 베드로의 장모 치유 사건> (루카 복음 4:38-44)

예수님은 "새벽 아직 캄캄할 때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 곳에서 기도 하셨습니다" (마르 1, 35). 예수님은 전형적인 아침형 인간 이십니다. 그 분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며 사셨지만, 늘 조용한 곳으로 피해 가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 하셨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제일 먼저 하느님 아버지와의 만날 약속 시간을 잡아 놓으셨습니다. 복음서 곳곳에서 보게 되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와의 깊은 일치와 통교 안에서 당신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할 사명을 재확인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의미와 목적,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창조 의미와 구원의 계획을 깨닫습니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서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난 것이다" (마르 1,38). 특별히 기도 안에서 예수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불행, 병자들의 고통을 대하시느 하느님과 똑같은 마음과 시선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환자들을 치유하시고 마귀들을 추방하십니다. 의학적 인간학에서는 "병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병은 결국 풀릴 수 없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뿐 이며, 과학적으로는 결코 남김없이 규정할 수 없는 문제" (지그문드 프로이트) 라고 합니다. 심지어 "병 그 자체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우리가 앓고 있는 인간에 대하여 알 뿐이다" (L. 크렐)라고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과 환자들의 고통은 하느님의 구원계획 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숙명처럼 짊어져야 할 이 모든 것이 다 하느님께로 가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 박광용 아우구스티노 정리기록 >> <가톨릭대교수>

매주 토요일 15시 부터
성북동 프라도의 집에서,
성체조배, 나눔, 미사 가
진행 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매일 12시 정오에

참제자 마음 조성을 위한 기도를,

같은 시간에, 한 마음으로,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기도에 참여합니다.

<하늘에 올라 하느님 오른편에> (마르16,15 - 20) -주님 승천 대축일 묵상-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질문해 볼 때, 각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가지 공통적인 것은 인간의 성숙과 완성이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는 점일 것이다. 모든 종교의 근본 목적이 절대자 하느님과의 만남에 있다고 할 때, 이 의미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간성(人間性)이 보다 성숙되고 완성되어 감과 비례한다고 하겠다. 다른 종교는 인간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군자(君子), 또는 성인(聖人)이라고 부르는데 그리스도교는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전제하고 이를 완성한다." (성 토마스 아퀴나스) 는 가르침에서 인간이 완성에 도달하는 가능성을 보게 된다. 바오로 사도는 마침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드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하게 되는 것" (에페4,13) 이라고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는 하늘로 승천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인간의 완성과 우주의 완성에 대한 희망을 본다. "내려오셨던 분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고 모든 하늘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 신 바로 그 분입니다." (에페4,10) 요한 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주 "너희는 아래에서 왔지만 나는 위에서 왔다." (8,23) "육에서 나온 것은 육이며 영에서 나온 것은 영이다." (3,6) 라는 대조적인 표현을 통하여 육적인 인간의 한계를 드러내시면서 동시에 당신 안에서 이루어질 새로운 삶, 즉 '새로운 인간'의 길을 제시하신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신앙고백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신앙 행위를 통하여 정화된 인간 영혼의 텅 빈 공간을 온전히 채우고 충만케 하시고 들어 높임(高揚)을 말하며, 바로 신앙 안에서 인간이 더욱 더 영적이고 정신적인 신비의 삶으로 이끌려 감을 말해 준다. 이는 또한 만물의 영장이면서 자연의 일부인 인간이 속한 이 세계(cosmos)의 진보와 발전의 전망을 열어 주는데, 우리 각자는 과연 이런 신앙의 확신(conviction)을 간직하며 사는지 자문해 보아야겠다.

* 참 제자 마을 설립 목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가난하고 고통 받는 이웃들과 함께 겸손과 나눔과 사랑이 넘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자 함

* 복음적 실천 목표

주제 ; 삼위일체 신비와 하느님의 가난

- 자기 비움
- 친교의 정신
- 가난의 정신
- 봉사의 정신
- 공동체적 영성의 삶

* 사업방향 및 목표

- **피정의 집** ; 머무르고, 쉬고, 기도하고, 친교를 나누는 공동체적 나눔 터
- **노인 요양원** ;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하느님의 사랑을 배우며 응답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의 터
- **환경 생태 공원** ; 하느님이 주신 자연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배움 터
- **관상 수도원** ; 젊고 활기찬 한국교회가 소홀 하기 쉬운 기도와 관상을 위한 기도의 터
- **포항 성모 자애원 마리아의 집** ; 이웃 사랑의 실천과 배움의 터

* 참 제자 마을 조성 봉헌 안내

*순수 기부금; 837-21-0285-795 국민은행 양 명신
*조건부기부금; 055-21-0724-082 국민은행 양 명신
(년6%금리적용 봉헌금 산정, 2001년12월 상환 예정)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권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화 ; 011-9961-3600 , 031-584-9117
팩스; 031-584-9117, e-mail ; thomyang@inteckor.com

< 신립 및 입급 현황 > 2008. 3. 3. 현재

신립인원	신립금	납입인원	입급액
91	560,992,000	427	324,176,000

*** 대단히 감사합니다 ***

- * 유언 증여된 방선녀카타리나님의 구로동빌라는 1억 4,000만원에 계약되어 3/31일 잔금 예정입니다.
- * 가톨릭 명동신협 대출금 4억원 중 12/3일 3,000만원, 1/14일 2,000만원, 2/4일 1,500만원, 2/28일 6,000만원, 3/3일 5,000만원을 상환하여 3월3일 현재 대출잔액은 2억2,500만원입니다.

- * 1월27일부터 운영위원회의에서 매일 12시 정오에 참제자 회원 모두가 참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를 한 마음으로 다 함께 하기로 하였습니다. 삼종기도 후 참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 기도 또는 주모경 및 어떠한 화살기도도 좋습니다. 동일한 시간에 다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참제자마을 임야 미사 봉헌 및 성지순례

11월11일 정약용선생 및 순교자 정약종의 마재 성지 순례 후 오후2시30분부터 모곡 임야 현지에서 82명이 참여하여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떡과 막걸리 파티 후 임야 능선을 산책한 후 설악면에서 구요섭 형제님께서 푸짐한 저녁식사를 협찬하였습니다.

* 프라도의 집 축성미사

12월10일 서울대교구 염수정주교님을 모시고 성북동 프라도의 집 축성 및 프라도 축일을 맞이하여 신부님의 서약 갱신식 및 축하파티가 있었습니다.

- * 12월15일-16일 성북동 프라도의 집과 밀씀터에서 15일 43명, 16일 45명이 참여하여 구요비신부님의 '성령 안에서의 삶', 강의와 진교훈원장님의 '행복한 삶', 황적인 교수님의 '크리스찬의 인간성숙'에 대한 발표와 김정임제루투르파님의 '주님 사랑 영원하리'에 대한 신앙체험발표가 있었습니다.

- * 1월 5일 17시 성북동 프라도의 집에서 참 제자 모임 신년미사 및 신년 인사회에 45 분이 참여하여 미사 후 저녁식사로 진행 되었습니다.

- * 박광용 아우구스티노 형제님의 장모이시며, 부인이신 조운경 마리스텔라 자매님의 어머니이신 김 석향님께서 11월 16일 향년 74세로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 홍 순일 아오스딩 형제님의 어머니이신 김 봉래 아네스님께서 2월 13일 주님 곁 하늘나라에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 드립니다.

* 2008년 계획

- 1월 5일 17시 ; 신년미사 및 인사회 , 프라도의 집
- 8월15일-16일 ; 포항성모 자애원 방문겸 성지순례
- 8월23일 -24일 ; 하계 피정 (프라도의 집, 모곡)
- 12월13일 -14일 ; 동계 피정 (프라도의 집)
- 모곡 임야 방문 및 등산 ; 평일 1회/격월 예정
- 매주 토요일 15시 성체 조배와 나눔 및 미사
15시 - 16시 ; 성체 조배
16시 - 17시30분 ; 나눔
17시30분 - 18시30분 ; 특전미사
- 매일12시 정오 ; 참 제자 마을 조성을 위한기도

* 운영위원회 조직

자문위원 ; 진교훈, 황적인, 김선규, 최한국, 지희용
홍승수, 김영자, 정영란, 김정임, 국옥희
이상운, 최창주, 정태진

추진위원장 ; 양명신

총무분과장 ; 백영국 (봉사; 홍순숙, 시설; 김동성)

전례분과장 ; 박광용 (전례; 안상용, 제대; 김정숙)

구역분과장 ; 문수정 (백영국, 홍순숙, 손 수, 양명신)

재정분과장 ; 양명신 (임시)

- 자문위원회 ; 1회/분기 자문위원회의

- 교육위원회 ; 피정 시 교육위원회

- 피정위원회 ; 각 팀 별 준비

- 운영위원회의 ; 매월 마지막 토요일 미사 후